축구가 예술이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후반 6분 프랑스의 사뮈엘 움티티가 쏜 헤딩슛이 벨기에의 골망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결승 '골인'

평균 연령 26세 '젊은 피' 조직력 앞세운 실용축구로 벨기에 1-0 승리
데샹 감독, 1998년 대표팀 주장으로 우승 후 20년만에 지도자로 도전

"누가 결승에 와도 자신 있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겠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황금세대'로 무장한 벨기에를 꺾고 12년 만에 프랑스를 결승으로 이끈 디디에 데샹(50·프랑스) 감독이 20년 만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별'을 따내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데샹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11일 벨기에와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하며 16일 0시 마지막 결승전을 펼친다.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에서 세밀한 패스와 조직력을 앞세워 결승에서 현란한 개인기의 브라질을 꺾고 역대 처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당시 프랑스는 패스와 조직력이 '예술' 같다고 해서 '아트 사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긴 프랑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지만 뜻하지 않은 지네딘 지단의 '마테라치 박치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에 그친 프랑스는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8강 진출에 성공한 뒤 이번 러시아 대회에서는 결승까지 오르며 '아트사커'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프랑스가 결승까지 오른 데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스타플레이어들의 활약도 뒷받침됐지만 데샹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 능력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데샹 감독은 프랑스가 자국에서 열린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당시 대표팀의 주장이었다.

20년 전 개성이 강한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하나로 묶어 '아트사커'를 이끈 주역이던 데샹 감독은 이제 지도자로 변신해 20년 만에 사령탑으로 프랑스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한다.

AS모나코(프랑스), 유벤투스(이탈리아), 마르세유(프랑스) 등을 지휘하다가 2012년 프랑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데샹 감독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프랑스를 16년 만에 결승으로 이끌면서 프랑스 팬들의 신임을 받았다.

데샹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평균연령 만 26세 밖에 안 되는 '젊은 피'로 도전을 준비했다.

잘 나가던 골잡이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대신 활약이 뜸했던 올리비에 지루(첼시)를 선택하고,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공격조율의 핵심을 맡기는 등 파격적인 전술까지 들고나와 우려의 눈길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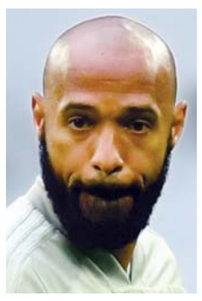
슈퍼스타들이 즐비함에도 개인플레이 대신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전술을 바꾸는 조직력을 강조한 실용적인 축구로 대표팀의 색깔을 바꿨다.

하지만 프랑스는 철저히 이기는 축구로 결승까지 올랐고, 데샹 감독은 프랑스 감독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대표팀을 2개의 메이저 대회 결승(유로 2016 및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 올리는 기록을 만들어 냈다.

만약 프랑스가 결승에서 승리하면 데샹 감독은 프란츠 베켄바워(독일)와 마리우 자갈루(브라질)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선수와 사령탑으로 모두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는 기쁨도 맛보게 된다. /연합뉴스

앙리 '조국'과 '직장' 사이

벨기에 코치로 준결승…패 확정 뒤 만감



'조국' 프랑스의 승리와 '직장' 벨기에의 패배 사이에서 '프랑스 레전드' 티에리 앙리(41·프랑스)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했다.

프랑스는 11일 벨기에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수비수 사뮈엘 움티티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승리하고 12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승리로 프랑스는 1998년 프랑스 대회 우승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기회를 얻었다. 반면 벨기에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무려 32년 만에 4강에 올랐지만 역대 첫 결승 진출의 꿈은 꺾였다.

벨기에의 패배에 팬들의 시선은 벨기에 대표팀 벤치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앙리 코치에게 쏠렸다.

앙리 코치는 경기 내내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전달하며 벨기에의 선전을 빌었지만 '프랑스 대표팀 후배' 움티티의 결승골을 지켜보며 허망한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앙리는 프랑스가 배출한 세계적인 골잡이다.

1997년부터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123경기에 51골을 터트리면서 역대 프랑스 A매치 최다골 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는 '아트사커'의 레전드일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도 175골(258경기)을 뽑아내 이 역시 역대 아스널 역대 최다골 기록으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결승 진출" 파리 개선문 들썩

1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벨기에를 1-0으로 꺾고 1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오르자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개선문 앞 샹젤리제 거리로 몰려나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4400억 유벤투스 이적

이적료 1300억…이탈리아서 새 도전

아직은 어색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어떤 전설을 더 써내려 갈까.

11일 공식 발표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유벤투스(이탈리아) 이적은 '세기의 이적'이라 불릴 만하다.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는 호날두는 10년 가까이 뛰며 각종 기록과 영예를 남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떠나 이탈리아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 초미의 관심을 끈다.

거론되는 액수만 봐도 이번 이적의 무게가 느껴진다.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는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00억원)다.

4년 계약에 연봉은 약 3000만 유로 정도로 알려졌고,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해 유벤투스가 기본적으로 내놓는 액수만 3억4000만유로(약 4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호날두지만 유벤투스가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결코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

2017-2018시즌 초반 슬럼프를 겪었으나 무섭게 회복해 넣은 골이 각종 대회를 통틀어 44골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만 15골을 폭발해 득점왕을 차지했다.

세리에A 7연패 등 국내를 호령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1995-1996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남의 잔치를 지켜봐야 했던 유벤투스로선 '우승 청부사'를 모셔온 셈이다. /연합뉴스